송도국제도시 영어통용도시 조성 힘 모아

인천경제청-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대학 등 7개 기관
유관기관 파트너십 구축 효율적 교육 모색 등 업무협약

인천경제청과 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대학 등 7개 기관이 '송도국제도시 영어 통용도시 추진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입주 외국대학 등 7개 기관이 송도국제도시를 영어 통용도시(Bilingual City)로 조성하는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6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송도국제도시 영어 통용도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진용 청장을 비롯 유병윤 IGC운영재단 대표, 아써 리 한국뉴욕주립대 총장, 로버트 패츠 한국조지메이슨대 대표, 한태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총장, 그레고리 힐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대표, 테드 힐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총괄 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사회와 연계된 영어 통용도시 확산 및 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 노력 △유관기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영어 교육 방안 모색, △기타 영어 통용도시 관련 각종 세부사업 추진 등이 골자이며 향후 실무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업무협약은 IFEZ 내 국제도시를 영어 통용도시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통한 민·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체결됐다.

인천경제청은 IFEZ 내 외국인들의 언어 불편 개선을 통한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 촉진 등을 위해 영어 통용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말 국제기구 종사자·외국인 학교 교원 등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등에 대해 실시한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우 만족"(19.9%), "만족"(35.4%) 등 응답자의 55.3%가 IFEZ의 정주여건에 대해 만족했다.

또 정주 여건 중 만족하는 부분은 안전(80.1%), 공원·녹지(79.5%), 교통(47.2%) 등의 순이었으나 불만족하는 부분은 언어가 78.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문화·레저(36.0%), 의료 서비스(23.0%) 등의 순이었다.

김진용 청장은 "세계 초일류도시 도약을 이끄는 IFEZ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외국인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 IFEZ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동수 기자 yds@hyundaiilbo.com

강화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주민 해결사 역할 톡톡

서도면 등 도서지역 순회서비스…24가구 68건 해결

인천 강화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도서지역 순회서비스'를 진행했다. (사진=인천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도서지역 순회서비스'를 진행하며, 섬 지역 주민들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난 3월 셋째, 넷째 주에 서도면과 삼산면 미법도를 방문해 총 24가구 65건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했다. 앞으로도 해당 면사무소와 협조를 통해 도서 지역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필요시 언제든 달려갈 계획이다.

군은 2021년 11월부터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화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유일하게 시행 중이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관내 사회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수도꼭지, 손잡이 교체, 방충망 보수 등 5만 원 이하의 생활불편사항을 무상으로 방문 수리하며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총 824가구 2076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했으며, 지난해 목표 건수 800건 대비 259%를 초과했다.

군 관계자는 "늘어나는 생활민원을 대비해 올해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신속하게 기동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으며, 선제적 기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욱 기자 kjd@hyundaiilbo.com

인천시의회, 올해 첫 청소년 의정교실

5분 자유발언·시정질문 등 의사진행 과정 체험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장도초등학교(남동구 논현1동 소재) 학생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올해 첫 의정아카데미 '청소년 의정교실'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청소년 의정교실은 청소년들이 1일 시의원이 돼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해 봄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학생들은 모의의회 체험 전 전문강사로부터 발표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특강을 받은 후 더욱 자신있는 모습으로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조례안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 의사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인천장도초교 학생대표는 "평소에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잘 몰랐는데 청소년 의정교실에 참여해 의장이 돼서 회의 진행을 하고, 선거도 직접 체험하면서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잘 알게 됐다"며 "앞으로 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허식 의장은 "앞으로는 청소년뿐 아니라 지역 내 청년들과 지역 현안 및 청년 정책에 관해 적극적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정아카데미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장도초교 학생들이 인천시의회 청소년 의정교실에 참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청소년안전망 1388 청소년지원단 총회

서구시설공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재용)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인천 서구의 지원으로 서구 관내 청소년(만 9세~24세)에게 상담 및 긴급구조, 교육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난 28일 청소년안전망 1388청소년지원단 총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청소년안전망 지원사업의 민간 연계기관인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지원단으로 발견·구조지원단, 의료·법률지원단, 복지지원단, 상담·멘토지원단 총 4개의 하부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총회에는 총 8기관(위누리지역아동센터, 인천참사랑병원, 나은병원, 황원준신경정신과의원, 인들레지역복지, 민화상, 아트퍼포먼스치료교육연구소, 하모니상담센터)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추진성과보고에 이어 1388청소년지원단 역할과 특성을 공유하고, 23년 신규지원단 위촉식 및 운영방안과 더불어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연계, 센터 사업 동향 등을 위한 안건으로 진행됐다.

김용복 기자 kangkh0480@naver.com

연수구, 주민 불편 사항 등 해결 방안 논의

구민 건의사항 보고회…화합분야 건의 가장 많아
송도권역 초중고교 신설·버스 노선 정비 등

인천시 연수구는 지난 4일 대상황실에서 구청장 주재로 주민 불편 사항 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023년 민선8기 구민 건의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장과 함께 2022년 초도방문, 2023년 연두방문 때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미 완료된 사항 위주로 문제점 및 대책, 추진방향,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6개 분야로 나뉜 건의사항 총 400여 건으로 △행정·안전(42건) △복지(34건) △교육·문화(43건) △환경·녹지(80건) △경제(5건) △화합(194건) 등으로 각 분야 중 화합 분야의 건의사항이 가장 많았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송도권역의 초·중·고교 신설 요청 △버스노선 정비(대중교통 신설 등) △송도국제도시관 건립 △수출용 방치차량 단속 △승기천 보행로 확장 △비행대로 교통소음 대책 마련 등이 있다.

연수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확보 등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송도 권역 학교 신설 등 자체 해결이 어려운 건의 사항들은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교육청 등과 협업 등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욱더 나은 구정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해당부서에 "건의사항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유동수 기자 yds@hyundaiilbo.com

市-시 교육청-JH에너지

지역 에너지신산업·그린스마트스쿨 협약

인천시는 6일 시 교육청에서 '지역 에너지신산업-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을 위해 시 교육청, 주관기관인 JH에너지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공립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그동안 교육청과 함께 현황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했다.

총 사업비는 약 30억 원(국비 15억, 시비 7.5억, 민간자본 7.5억 원)으로, 교육시설에 △에너지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태양광 발전사업 △에너지·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력수요관리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물론 에너지효율화 사업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의 주요 특징은 학교 옥상 등 유휴부지에 880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발전 사업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발전 수익금은 연간 약 2억 3,000만원에 달한다. 수익금의 일부는 학교 및 민간의 태양광설비 투자자본 회수를 위해 환원되고, 나머지는 에너지 교육 및 시 기금으로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재투자함은 물론, 교육시설 등에 너지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편집=정규성 기자 jsk@